

‘고객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디지털 교보 변화 선도

신창재 회장 전사경영전략회의

KYOBO 교보생명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유연성·수평적 태도·소통 강조
부서 아닌 전 임직원 주체로 혁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1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 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금리 장기화, 카카오·토스 등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등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한 후 “이제



지난 10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자”며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교보생명

막연히 성장을 논하기보다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업현장 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해 경영성과를 짚어보고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

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올해 경영방침을 ‘생존을 넘어 디지털 교보로 가자’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보험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객가치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MAGA(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는 하이테크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은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기업이라고 말한다”며 “이처럼 사업(Business)의 기본은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니즈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타사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디지털을 활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업무 프로세스도 고객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오너 CEO로서 생명보험사의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철학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 임직원이 주체가 돼 디지털 혁신의 기획(Plan)과 실행(Do)을 모두 이끌어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실무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모두 갖춘 ‘양손잡이’ 인재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잘하기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겸손과 정직, ‘유연성’, ‘수평적 태도’, ‘경청과 공감’, ‘소통’과 같은 덕목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이대훈, 전국 누빈다 현장 소통경영 추진

NH농협은행은 이대훈 행장이 지난 10일 서울·강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과의 소통경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과 강원권역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서울영업본부에서 진행된 현장경영에서 이 행장은 지난해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기 사업추진 태세 확립 ▲건설성 제고를 통한 건강한 은행 만들기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금융선도·글로벌 사업 확대·고객 자산화 전문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생명 당뇨·디스크 등 보장 건강보험 3종 출시

NH농협생명은 당뇨병 진단과 합병증을 한 번에 보장하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 당뇨병 진단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당뇨병진단자·갱·무)’, 디스크와 관절염을 보장하는 ‘허리업(UP)NH척추보험(무)’ 등 건강보험 3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은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주계약만으로 당뇨병(당화혈색소 9.0% 이상) 진단이 나오면 1000만원, 당뇨병 진단 확정 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진단시 각 2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특약을 통해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실명진단 확정, 족부절단수술시 각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당뇨 관련 주요 질환으로 인한 입원급여금, 수술자금 등도 보장한다. /김희주 기자

“최고의 가치는 신뢰... 7대 경영전략으로 그룹 리빌딩”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경영전략회의

‘동행경영 선포식’ 진행
UN책임은행 원칙 가입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신뢰”라며 “진심진력(眞心盡力)의 마음가짐으로 고객, 직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전 임직원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1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10일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그룹사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지주사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이라는 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션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손 회장은 기념사에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룹체제 2년차’를 당부함과 동시에 ‘고객 신뢰 1등 금융그룹’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경영전략회의에서 ‘동행경영(同行經營) 선포식’을 진행하고 그룹사 모든 임직원들이 고객의 든

든한 동반자가 되자는 취지의 결의 다짐 시간을 가졌다. 특히, UN책임은행 원칙에 가입하는 서명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7대 경영전략으로 ▲고객중심 영업 혁신 ▲리스크

우리금융그룹 7대 경영전략

1. 고객중심 영업 혁신
2. 리스크관리·내부통제 혁신
3. 지속성장 동력 강화
4.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5. 디지털 혁신 선도
6. 글로벌 사업 레벨업
7. 우리 투게더 시너지

크관리·내부통제 혁신 ▲지속성장 동력 강화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디지털 혁신 선도 ▲글로벌 사업 레벨업(Level-up) ▲우리 투게더(Woori Together) 시너지 확대를 제시하고, 경기 하락 속에서도 그룹 리빌딩(Rebuilding)을 완성할 향후 2~3년 우리금융그룹의 승부처라며 중장기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임기만료 앞둔 저축은행 CEO들... 금융권 “대부분 연임 할 것”

지난 해 저축은행 실적 고공행진
신한·KB 연임, 웰컴銀 연임 확실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가운데 임기 교체 기간을 맞이해 연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 대표들이 지난해 연임을 확정지었지만 올 상반기 내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도 여럿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저축은행의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현재 대표들이 올해에도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며 연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영표 신한저축은행장과 신홍섭 KB저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정진문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축은행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데 이어 오는 3월 임진구·정진문 SBI저축은행 공동대표와 김대웅 웰컴저축은행대표, 윤병목 JT천애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다.

우선 신한, KB저축은행은 이미 연임을 확정했다.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분기순이익이 189억원, KB저축은행은 103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상승세를 매 분기 이어갔다.

임진구·정진문 SBI저축은행 공동대표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지난해 SBI는 투자은행(IB)을 담당하

는 임진구 대표와 리테일을 맡은 정진문 대표의 시너지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웰컴저축은행의 김대웅 대표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업계 최초로 풀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순이익으로는 업계 2위까지 올려놓은 김 대표 또한 올해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JT천애저축은행의 윤병목 대표도 지난해 경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3분기 말까지 대손충당금을 줄이는 동시에 이자수익을 끌어올리며 236억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오는 3월 임기인 하나저축은행 오화경 대표도 연임 개연성이 높다. 2019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5억원으로 전년 동기(40억원) 대비 62%나 급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